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 방한

제네바/서울 (2019년 1월 3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이하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 고위관계자, 외교계 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를 비롯한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최근 이탈한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차례 방문 요청을 전달했으나 해당국은 특별보고관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별보고관은 해당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고, 금번 방한은 지난 2018년 7월 방한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특별보고관은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에서 1월 11일 금요일 (현지 시각 기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 출입은 언론관계자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별보고관이 파악한 내용과 권고는 2019년 3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끝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또한 기업형사책임 건도 다룬다. 과거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추가 정보 및 언론사 영어 문의는 Olga Nakajo (+41 76 691 10 99 / onakajo@ohchr.org), 한국어 문의는 송유미 (+82 2 725 3524 / ysong@ohchr.org)로 해주십시오.

기타 유엔 위임권한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Jeremy Laurence, UN Human Rights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의 해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상 가장 많은 50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전세계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위대함과 영향력을 재차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퇴색되지 않도록 인권 옹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스탠드업(STAND UP)”** 목소리를 내주세요. www.standup4humanrights.org